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 사람에게로

도로 일부 아스팔트 걷어내
명품가로수 등 갖춘 거리로 탈바꿈

올해부터 자동차 비워진 도로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정례화

덕진동 가린광장서 풍남동 한벽교까지
향후 기린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전주시가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자전거 전용도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와의 전쟁을 통해 빼앗겼던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게 하고, 문화 예술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사람의 도로, 사람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850m구간의 차선을 기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는 대신, 도로 중앙에 폭 15~20m의 광장과 힌터를 조성하는 첫마중길 조성을 마무리 중이며,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정례화, 기린대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등을 조성해 자동차로 채워졌던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우선, 시는 첫마중길 조성사업을 통해 삭막했던 도로 일부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명품가로수와 광장, 문화쉼터 등을 갖춘 쾌적한 사람의 거리로 탈바꿈 중으로, 완공단계에 있다. 특히 자동차를 위한 직선도로를 상대로 한국의 미(美), 자연의 미(美), 전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면서 사람이 안전한 곡선도로와의 싸움을 진행 중이다. 차량은 곡선도로를 만나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의 지난 2009년 발표자료를 보면, 직선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곡선도로 보다 13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선도로를 보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만 보이지만, 곡선도로를 달리면 차량의 속도를 줄여 사람과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가 거리와 광장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해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역사권인 6지구 주변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곡선도로는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시작됐으며, 최근 들어 직선형 도로를 곡선형으로 바뀌

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우르과이 남부 라군(lagoon)지역은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원형다리를 건설해 세계적인 명소로 급부상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자동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자동차에게 내어준 도로를 원주민인 시민에게 제공해 가장 인간적인 도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객사 앞 충경로에서 첫 실험으로 '객사 앞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부제 전주본색)'를 진행했다. 특히, 도로에 자동차가 비워지면서 안전한 보행 공간이 확대되고, 도로 위에서 펼쳐진 문화행사를 만끽하는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져 지역 이미지 개선과 상가매출 증대 등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시는 전주의 대동맥인 기린대로를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와 함께 쓰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덕진동 가린광장에서 풍남동 한벽교까지 5.7km 구간의 차로를 줄여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분리돼 기린대로를 따라 걷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60년 만에 시민들의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을 고려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실시하는 등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아닌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가 만들어지면 가장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특히 사람 중심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흥성해져 관광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인공을 앞둔 전주역 앞 마중길에 설치된 조형물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